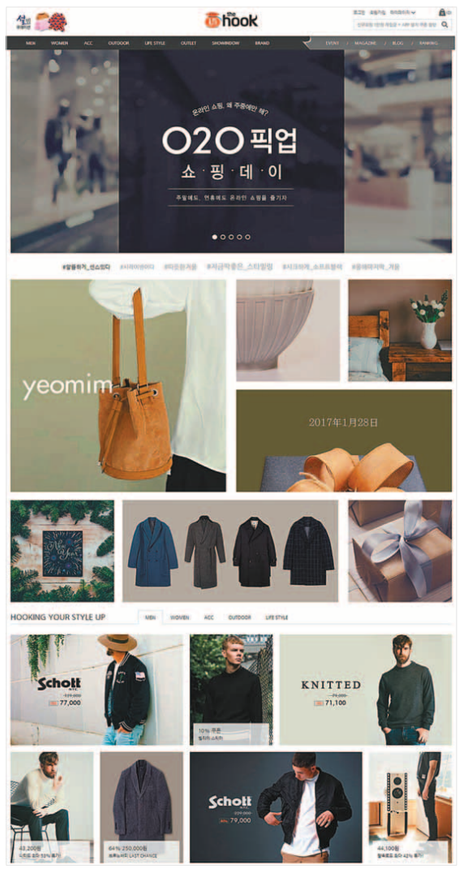
SW 강화하는 유통, HW 키우는 패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패션사업과 손잡아
SSF샵·세정은 온라인몰·O2O 서비스 강화



패션 시장을 두고 유통업체와 패션업체의 '동상이몽' 크로스전략이 눈길을 끈다. 세정 온라인몰 '더훅' 메인 페이지 이미지.
사진제공 | 세정

패션

패션 시장을 두고 유통업체와 패션업체의 '동상이몽' 크로스전략이 눈길을 끈다.

유통업체는 패션 브랜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태세고, 패션업체는 온라인몰 및 O2O(Online to Offline) 기능을 가미해 하드웨어를 튼튼히 한다는 복안이다.

유통업체 대표주자로 현대백화점그룹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패션전문 계열사인 한섬을 통해 SK네트웍스 패션사업 부문 전체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 두 회사 매출을 합치면 1조3500억원 수준으로, 이랜드·삼성물산 패션부문·LF 다음으로 매출이 많아 현대백화점은 패션업계 4위로 도약이 예상된다.

여기에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옴므'와 '시스템'이 지난달 중국 진출에 이어, 이달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나란히 입점하면서 글로벌 한섬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렇듯 최근 패션업계 관전포인트는 탄탄한 유통망을 가진 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 백화점·아울렛 등 모기업의 지속적인 출점에 힘입어 톡톡한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존 패션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LF가 대표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지난 2010년 이후 매출 신장률이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고가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온라인몰 포트폴리오를 중저가 브랜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하프클럽닷컴', 유아동 전문 쇼핑몰 '보리보리', 스포츠 아웃도어 전문몰 '아웃도어스' 등을 보유한 패션 전문 온라인 기업 트라이씨클을 인수해 온라인몰 플랫폼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LF 측은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유통채널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O2O를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온라인몰 SSF샵이 대표적으로, 최근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구매를 강화했다. 전국 50여 개 직영매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매장 픽업, 반품·교환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정도 온라인몰 '더훅'을 오픈하며 e커머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라이프스타일 O2O 쇼핑 플랫폼'이 주요 콘셉트다. 특히 가두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했기에 총 1500여개 브랜드 매장을 '더훅'과 연결시켜 O2O 쇼핑 환경을 최적화시켰다. 세정 측은 "고객들은 '더훅'에서 온라인 주문 뒤 근거리 매장을 선택해 상품을 찾아갈 수 있다"며 "브랜드 구분 없이 전국의 세정 브랜드 매장 1500여 곳에서 상품 픽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듯 패션 시장을 두고 유통업체와 패션업체의 크로스 전략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패션시장 침체 속에서 유통계열사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며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휠라, 이태원서 '더블 디럭스 데이' 개최

휠라는 최근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휠라 이태원 메가스토어에서 '휠라 더블 디럭스 데이(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기 슈즈인 코트 디럭스 커플 운동화와 빅 로고 커플 티셔츠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패키지를 운동화 하나 가격(6만9000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실속 있는 구매혜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휠라 측은 "단순한 제품 구매 기회뿐 아니라 새로운 놀이문화의 장으로 여겨지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며 "향후 제품 개발은 물론,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브루노바피, 만 32세 이하 정장 구매시 넥타이 증정

세정 남성복브랜드 '브루노바피'가 3월1일까지 '내 생에 첫 정장' 프로모션을 연다. 사회 초년생 등 새로운 출발을 앞둔 소비자들을 응원하고자 함이다. 정장 한벌을 구매하는 만 32세 이하 고객들에게 브루노바피의 감각있는 넥타이를 무료로 증정한다. 전국 라이프스타일 패션 전문점 웰메이드 매장 또는 브랜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LF '앳코너' 새 모델로 김나영 발탁

LF 앳코너 새 모델 김나영

LF '앳코너' 새 모델로 방송인 김나영이 발탁됐다.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뿐 아니라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주목받는 패셔니스타 김나영과 함께 시즌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시너지를 낼 계획. 'Peace, Love, Joy'가 주요 테마다. 'Peace'는 현대적이고 시크한 감성을, 'Love'는 여성미와 사랑스러움을, 'Joy'는 독특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담은 스타일로 '앳코너'만의 개성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올 봄 남성패션 '서강준처럼~' 빈폴아웃도어 모델 서강준의 '2017 봄·여름 시즌' 화보가 공개됐다.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서강준은 캐주얼 하면서도 도회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어반 아웃도어룩을 완벽히 소화했다. 특히 시드니 최고의 쇼핑거리 마틴 플레이스에서 회색 맥코트에 백팩을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뽐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빈폴아웃도어

■ 부고

▲이상우씨 별세, 이상민(서울삼성썬더스농구단 감독)·이은서·이지은씨 부친상, 한상수(서울중앙지검 행정공무원)씨 장인상=13일 오후 6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3410-6914

▲김형철씨 별세, 안덕수(청주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감독)씨 빙부상=삼육서울병원(구 위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낮 12시

▲이재민(BAT코리아 과장)씨 조모상=13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5일 오전 11시30분 (031) 219-4581

▲최원표(전 한진해운 대표)씨 별세, 조인자씨 남편상, 최성택(노던크로스 PD)·최재원(GPS어학원 부원장)·최수오(엘카코리아 아베다 홍보부장)씨 부친상, 김욱중(유진증권 전략사업본부 이사)·황순조(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씨 장인상=13일 오전 5시2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45분 (02)2258-5940

강주현의 퍼즐월드

7			4	2				8
		5				1		
	8			1	7		3	
		8		5				3
1		3	7		6	2		9
6				8		7		
	1		3	9			2	
		4				3		
3				6	8			1

		1	8		7	5		
			6		9			
9		8				3		7
7	1			8			5	3
			9		2			
8	9			5			1	2
1		9				2		5
			1		5			
		6	2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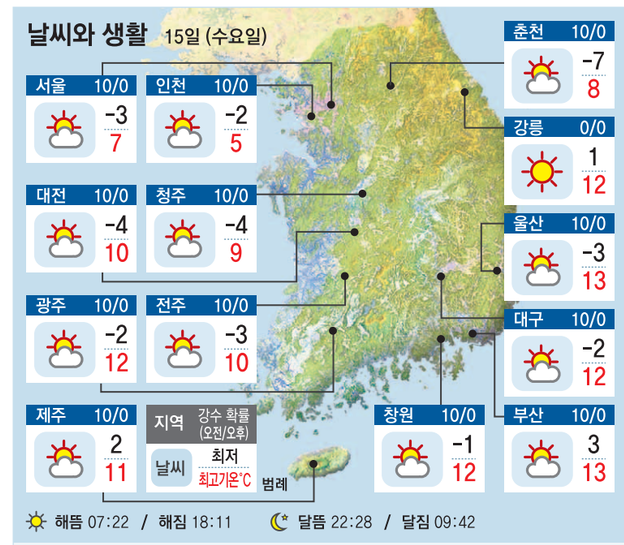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3	2	7	5	9	8	6	4	1
8	9	4	1	7	2	3	5	6
5	1	6	3	9	4	8	2	7
6	4	9	2	8	3	7	1	5
1	5	3	7	4	6	2	8	9
2	7	8	9	5	1	4	6	3
9	8	5	8	1	7	5	3	4
4	6	1	4	2	5	9	7	2
7	3	2	6	3	9	1	7	8

5	4	6	2	7	8	1	3	9
2	8	3	1	9	5	4	7	6
1	7	9	3	6	4	2	8	5
8	9	4	7	5	3	6	1	2
3	6	5	9	1	2	7	4	8
7	1	2	4	8	6	9	5	3
9	2	8	5	4	1	3	6	7
4	5	7	6	3	9	8	2	1
6	3	1	8	2	7	5	9	4



산 날씨

북한산	-3/7
설악산	1/11
오대산	-9/8
계룡산	-6/9
속리산	-7/9
소백산	-5/8
팔공산	-2/12
지리산	-4/13
덕유산	-8/9
내장산	-4/9
한라산	0/9

바다 날씨

인천송도	-3/5
제부도	-5/7
경포대	1/12
속초	0/12
대천	-4/8
안면도 꽃지	-3/7
변산반도	-4/9
거문도	0/12
칠포	1/13
해운대	2/13
제주도	4/10

미세 먼지

서울	54	보통
부산	73	보통
대구	60	보통
인천	51	보통
광주	72	보통
대전	55	보통
울산	57	보통
경기	68	보통
강원	66	보통
충북	58	보통
경남	70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6일(목)	서울경기	-1/11	영동	4/14	충청	-3/13	호남	-1/15	영남	6/14	제주	4/16
17일(금)	서울경기	0/4	영동	6/8	충청	2/5	호남	6/8	영남	10/15	제주	10/11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5일(수요일) 음력:1월 19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반복되는 일이나 중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의외로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길방:서
소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탑을 쌓는 날이다.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마음은 고뇌에 차 있고 몸은 한없이 게으르고 싶은 날이다.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흉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다.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길방:중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욱하고 일어나는 기운이다. 오늘은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유 해결. 운세: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전력을 기울여 정면 돌파 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 속임수가 있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결국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을 하라.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하라.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좋아지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길방:남
돼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과감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길방:동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4,6,9,(3,8)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말,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경제부 02 2020 1062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